

가장 빈도가 높은 상해양상은 외상이었고 골절도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다. 외상 사고중에는 좌창과 좌멸창이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했고 외상은 '74년에 비해 '75년에 약 20% 정도 감소된 경향을 보였고 골절은 10% 정도 증가된 경향을 나타내었고 비교적 방적과와 소모과에서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외 공상은 두드러진 증감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 산업장 건강관리실의 건강관리 실태조사 연구

김천간절 논문집 제5집, pp.93~107, 1977

### 최 경 숙

1977년 7월 대구에 소재하는 모 섬유기업체에서 생산에 관여하는 근로자의 약 20% (160명)을 대상으로 배표법을 사용하여 산업장 건강관리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조사대상자의 속성

조사대상자의 성별분포는 약 70%가 남성이었다. 연령별에 있어서는 종업원의 80% 이상이 생산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20세~30세에 속하고 있다.

결혼상태는 미혼보다 기혼이 약간 많았고 약 과반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 2.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 및 건강관리

1)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은 아주 높았다. 성별이나, 교육정도,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 60% 이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데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2) 개인위생 및 건강문제 해결방안

(1) 작업후나 식사전, 외출에서 돌아 왔을 때 근로자들의 손 씻는 습성은 약 1/3정도가 습성화 되어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은 그것이 습성화 되어 있지 않았다.

(2) 감기나, 소화불량등 가벼운 건강이상을 느꼈을 때 대다수(81.3%)의 근로자들은 약국에서 약을 사먹고 있었고 기업측의 여러가지 배려에도 불구하고 병원(건강관리실 포함)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은 극히 적었다.

#### 3. 건강관리실 이용정도

(1) 응답자 총수중에서 조사전 한 달 동안 이용 근로자는 전체의 14.4%였다. 이를 성별 및 결혼상태, 부서별로 보았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이, 미혼보다는 기혼이, 생산부보다는 공무부가 좀 더 많이 이용하였다.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의 경력자의 이용률이 높았고 1년이상 3년미만 군에서는 거의 이용하지 않다가 그 뒤에 다시 근무경력이 오래인 사람의 이용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였다.

#### (2) 건강관리실 방문의 주된 이유

조사대상 근로자들이 건강관리실을 방문한 이유중 가장 많았던 것은 건강정보 입수였고 다음이 질병치료, 휴식 및 긴장해소를 위해서였다. 따라서 본 대상기업의 산업장 건강관리실의 기본적 기능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건강관리실의 교육기능 및 상담기능 실태

1) 신체검사, 건강위생관리, 질병관리, 직업병관리, 응급처치, 사고예방, 무상해사고,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전체의 47.0%였다. 이 중 응급처치, 안전관리, 사고예방, 신체검사에 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교육을 받았지만 직업병관리 및 질병관리, 무상해사고에 관해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적었다.

#### (2) 교육을 한 사람

약 과반수의 근로자가 교육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타자에서는 안전관리자로부터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대개 건강에 관계된 교육은 건강관리자, 작업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안전관계자로부터 받았다.

(3) 받은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가에서 약 반수의 근로자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거나,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근로자는 반수가 되지 않았다.

(4) 앞으로 이 분야의 교육을 계속해서 받는 것을 75.2%가 원하고 있어 이들 근로자의 교육이수요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상담기능

자신의 문제를 건강관리실요원에게 의논한 적이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58.1%였고 주로 인간관계(22.5%), 개인문제(22.5%), 건강관리(18.3%), 자신의 질병(15.1%)에 관하여 상담하였다.

### 5. 응급처치에 관한 근로자의 주관적 지식정도와 객관적 지식정도

산업장에서 비교적 유발 가능성이 높고 생명이나 신체적 불구를 초래할 수 있는 대량출혈 및 사지골절,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 눈에 화학약품이 들어 갔을 때의 응급처치에 관한 근로자의 주관적 지식정도와 객관적 지식정도를 대비한 결과 자신은 잘 알고 있다는 근로자의 78.1%, 조금 알고 있다는 근로자 71.6%를 제외하고는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은 전연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60.8%가 올바른 대답을 하여 근로자가 판단한 응급처치 지식의 객관적 정확성 여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상 조사에 따라 건강관리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작업장에 기생하고 있는 각종 위생물의 체내침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작업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도록 지도할 것이며, 둘째, 근로자에게 건강이상 이 왔을 때는 사내 건강관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이 이용하기를 꺼리는 불편조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셋째, 건강위생관리 및 직업병,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교육하도록 할 것, 넷째, 산업장의 우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가(의사, 간호원등)가 실제로 시범해 보이고 반드시 그 결과를 명기해 보도록 할 것, 등이다.

## 일부 지역사회 산업보건간호에 관한 연구

단행본, 1977

황보선 · 이길자

1977년 3월부터 10월까지 부산시 일부지역내에 있는 업종이 다른 산업장을 임의 선택하여 여성근로자 2,332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록지, 보건생활 기록지와 Broiman 등이 제작한 CMI 질문지를 이용하여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건강기록지에 의한 체력검사는 한국인의 체격표준치와 비교한 결과 양호하였다.
- 2) 보건생활기록지에 의한 결과는 섬유제품 산업장에서 가장 높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율의 보건생활상태를 나타내었다.
- 3) CMI 검사에 의하여 대조군 보다 각 항목별로 높은 호소율을 나타낸 곳은 각각 나무제품, 금속제품, 고무제품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산업장들이었다.
- 4) CMI의 호소수와 근무기관과의 관계는 의미있는 연관을 보이지 않았다( $p > 0.05$ ).
- 5) CMI의 호소수와 교육정도와와의 관계는 교육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높은 호소를 나타내는 의미있는 연관성을 얻었다( $p < 0.05$ ).

위의 결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장의 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산업간호원은 다른 의료기관과 산업 경영자와 함께 그 산업장에 알맞는 보건계획, 보건교육, 예방관리 실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